

뛰는 기업과 걷는 정부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결두리’와 ‘결방살이’

농사를 지을 때는 끼니 때마다 먹는 밥맛도 좋지만 틈틈이 먹는 새참도 있을 수 없다. 막걸리와 옥수수 등이 나오기도 했고, 조금 후대에는 찜빵이나 라면이 나오기도 했다. 고통으로 먹는 점심보다 짬짬이 먹는 결두리가 훨씬 더 좋았던 적도 있다. 특히 고구마에 신김치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다.

‘결두리’는 이와 같이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찜찜이 먹는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새참이 있다. 예문을 보자. “춘보 며느리가 결두리로 고구마를 내왔다”(송기숙 ‘암태도’)와 같이 쓴다. 참방이라고도 한다.

‘결방살이’란 ‘남의 집 결방을 빌려서 생활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예문으로는 “남의 집 귀한 따님을 데려다 놓고 결방살이를 시키다니?”(염상섭 ‘삼대’) 같은 것이 있다. 유익어로 ‘결방살림’ 격간살이가 있다. 우리 속담에 ‘결방살이 불내기’라는 말이 있다. 평소 눈에 거슬러던 데서 큰 사고가 생겨 더욱 미워지는 경우를 이른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한국어문화학회 회장



스카이 View

이상준
산업경제부장·부국장

“관리자 나와!” 화난 남자가 대형마트에 나타났다. 광고지를 든 채 따졌다. “내 딸이 고등학생인데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관리자는 머리를 조아렸다. 여고생에게 발송된 우편물에는 임신부와 갓난아기용 상품 광고가 가득 했다. 관리자는 며칠 뒤 전화로 또 사과했다. 그러나 웬걸, 남자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다. “딸과 이야기했는데 임신했답니다. 소란을 피워서 매우 미안합니다.” 미국 대형마트 타겟이 부모도 몰랐던 여고생 임신을 알아챈 이야기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알려졌다.

타겟은 오랫동안 고객을 관찰했다. 통계 담당자 앤드루 폴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성 고객들은 임신 초기에 향이 없는 로션을 샀다. 아울러 갑옷과 마네킨수 보충제도 많이 팔렸다. 타겟은 소비자 습관을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고 고객에게 필요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광고지에 담았다.

예를 들면 애플랜타에 사는 여성이 물건을 넣을 공간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가방과 마그네슘 보충제를 샀다. 고객관계관리(CRM) 분석자는 임신 확률이 87%이고 출산일이 5개월 뒤라고 예측했다. 여러 고객의 구매 행태를 분석한 결과 가방은 기저귀를 넣는 용도일 거라는 추론은 정확했다.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진화를 거듭한 끝에 호모 파베르(homo faber)가 됐다. 생각하는 능력이 가진 사람은 어느덧 도구(CRM)를 사용해서 예언자 수준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호모 파베르)은 인공지능(AI)급 도구를 활용한다.

경제학은 오랫동안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전제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말했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가격)은 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러나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 사벨과 에르메스 가방은 실용적이지 않지만 매우 비싸게 팔리고 서울 아파

트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 명품과 강남 아파트에 집착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심리적 만족에 매달린다. 행동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란 최적(optimizing)보다 만족(satisfying)에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경제학 교과서에 없었던 기업들은 끊임없이 고객을 탐구한 끝에 부모조차 몰랐던 여고생 임신까지 알아채는 족집게가 됐다.

대졸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정보는 무엇일까. 다음에서 검색하면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결과로 나온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온갖 대출광고와 대출 비교가 쏟아진다. 네이버와 다음은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와 혐의해 대출 관련 검색에서 대출 광고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을 먼저 노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 광고를 거부하거나 검색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음과 비교할 때 네

이버가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도덕이 아닌 수익이란 기준으로 보면 매출과 수익이 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사 임원과 식사했다. 대화 주제는 금융이 아닌 민생이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의 삶이 눈에 띌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학에만 능통한 정부 관료 처지도 딱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야만 했다. 금리를 낮춘다는 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서울 집값도 들쭉였다.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듯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가계대출 억제를 종용했다. 게다가 해마다 걷히는 세금이 부족하지만 법인세 감면은 대통령 공약이다.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뛰기 하려고 해도 쓸 돈이 부족한 셈이다.

백주를 들이켜 뒤 발상의 전환이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카드사 등이 가진 통계를 꼼꼼히 따져서 활용하면 적은 예산이나마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다. 타겟이 임신 사실을 숨겼던 여고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추천한 것처럼 말이다. 나라 곳곳을 격격하는 언론인과 금융인은 민생이 나아지길 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정부가 뭘가를 해야 할 텐데 도무지... 민생에 쓸 돈이 부족하게 뻔하니 제대로라도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에도 전문가들이 많아요. 어디서 장사하는 서민이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지 제하고 있어요. 형세를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쓰도록 도울 자신이 있어요. 정부가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울 걸요!”

jun@skyedaily.com

‘뉴 삼성’ 구호와 이재용 회장 책임



데일리 Talk

양준규
산업경제부 기자

회장의 ‘뉴 삼성’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은 전에 없던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 실적 부진과 함께 HBM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파운드리 반도체 수출 부족과 모바일 사업부 품질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 주가도 하락해 ‘5만전자’가 현실화됐다.

삼성의 위기 속에서 이 회장의 존재감은 였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MX)이나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의 존재감이 더욱 크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발표한 반성문 역시 전영현 부회장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회장은 아직 삼성 전기 이사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의 존재감은 경영 행보보다는 이 회장이 다녔던 어묵집 매출이 상승했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뿔어져 나왔다. 연예인이었다면 확실히 좋은 일이지만 삼성전자 회장이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어묵집

매출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실적이다. 혹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법적 리스크에 따른 경영 공백을 이야기한다. 삼성전자의 구심점이 돼야 할 이 회장이 법정에서 끌려다니고 있으니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회장 취임 당시 삼성전자 이사회가 내세운 이유를 보자. 이 회장이 취임한 2022년 10월27일에도 이 회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설마 삼성전자쯤이나 되는 회사에서 회장님 일정을 몰랐을 리 없고 그 대단하다는 삼성전자 법무팀이 재판이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도 없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사회는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재판 출석하느라 회사 일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회장으로 승진시키면 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경영 안정성이 제고되며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 된다.

2022년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이 회장이 풀려났으

니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고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고 회장 취임 후에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쏙 빼고 ‘뉴 삼성’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떠들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사법 리스크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공색하다.

또 요즘에야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가느니 SK하이닉스 간다는 말이 나온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최고 두뇌들을 모아 놨는데 이 회장이 관심을 못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재판 끝나기만 기다려야 한다면 그건 법조계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조직을 만든 사람들의 잘못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삼성전자는 전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가 진정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면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이 회장 법적 리스크 소멸보다는 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jjgyang@skyedaily.com

SkyeDaily

발행·편집인 조정진 논설실장 박선옥
인쇄인 임재청 편집국장 박용준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 / 연 240,000원

농협경제지주

가까이 하면 더욱 안전한
우리축산물

농협안심한우
농협안심한돈
농협안심계란
농협안심축산

우리나라 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농협안심축산 사육은 전국 농축협과 함께 합니다.